

# 가정관리에서의 생활표준 : 진단과 과제

The Standard in family resource management:  
Diagnosis and future direction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부교수 이연숙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Lee, Yon Suk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새로운 생활표준 정립을 위한 제언 |
| II. 가정관리에서의 생활표준의 의미                  | V. 결론 및 제언             |
| III. 현대가정의 가정관리활동과<br>관련된 주요 생활표준의 양상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clarify the concepts, origin, and roles of standard, to diagnose the standard developed in contemporary family living, and to suggest desirable standard for effective home management. Five prevalent standards found in managing family resources were convenient-oriented standard, others-oriented standard, material-oriented standard, individual-oriented standard, and frugal-oriented standard.

The changes of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s and family resources affecting these standards and some problems resulted from these were discussed. Considering undesirable effects of old standards on resource management, family relationship, quality of life, and society in general, these old standards should be replaced by compromise convenient-oriented standard, self-oriented standard, being-oriented standard, joint-oriented standard, and new frugal-oriented standard. Some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publicity, and policy were suggested.

## I. 서론

오늘날 산업화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개인과 가정 생활, 그리고 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의 가치나 목표도 변화하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도 과거와는 유형, 양과 질의 측면에서 달라지고 있다. 가정관리 활동이 가족들이 가치 있다고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사용한다고 볼 때 이러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가족의 가치와 목표, 자원의 변화는 가정관리 활동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체계적 접근법은 이러한 변화된 가정관리 활동의 양상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준다. 체계적 접근법은 가정관리활동을 시작하게 하는 근원적인 요소인 투입요소, 가정관리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이러한 활동으로 나타난 산출요소들로 구분하여 각 요소들의 상호관계와 이러한 상호관계로 나타난 전체적 특성을 유기적으로 분석하게 함으로써 가정관리 활동의 다양한 측면의 변화된 양상과 이러한 변화로 야기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가정관리 활동을 시작하게 하는 근원요소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이어지는 과정요소나 산출요소의 변화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정관리 분야 연구의 괄목할 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정관리활동을 시작하게 하는 근원적인 요소인 동기요소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그 동안 가정관리 활동의 동기요소에 대한 연구의 관점은 가치, 목표, 표준이 가정관리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를 주로 분석하는 것이었으므로 이를 통하여 어떤 가치, 목표, 표준이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유형의 가치, 목표, 표준이 형성된 원인은 무엇이며, 성공적인 가정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가치, 목표, 표준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가정관리 활동의 동기요소중의 하나인 생활표준에 대하여 이러한 답을 얻고자 시도되었다.

구체적인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표준은 무엇이며 어디서 유래되고 가정관리 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2. 현대의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어떤 생활표준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생활표준이 갖는 문제는 무엇인가?
3. 합리적인 가정관리 활동을 위해서 요구되는 생활표준은 무엇인가?
4. 바람직한 생활표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생활표준에 대한 양상은 관련 선행연구의 내용분석과 가정생활의 관찰을 통해서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유추해 본 것으로써 같은 현상이 다른 유형의 생활표준에서 유래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이름의 생활표준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그리고 모든 가정생활 양상과 관련된 생활표준을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주로 가족자원관리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생활표준을 논의하고자 한다.

## II. 가정관리에서의 생활표준의 의의

### 1. 생활표준의 의미

표준은 가치, 목표와 함께 가정관리행동의 동기요소이다. 가치가 개인 혹은 집단의 행동방향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동기이고, 목표가 성취하고자 하는 대상이라면 표준은 목표달성의 질과 양을 판단하는 척도이다. 다시말하면 가치가 교통수단이고 목표가 도로라고 가정하면 생활표준은 도로에 있는 길안내 표지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표준이란 목표달성이 어떻게 되어야만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가하는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임정빈·지영숙·문숙재·이기영·이연숙, 1994). 이러한 표준의 개념을 기반으로 문숙재외 4인(문숙재·곽인숙·김순미·홍성희·윤숙현, 1996)은 생활표준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들의 정의에 의하면 생활표준은 “가정이 가정활동을 결정하는 규범이며, 또한 가정의 활동비율을 정할 수 있는 목표의 정도이고 이는 가정의 욕구 및 수요체계”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표준은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한 길잡이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

에서는 생활표준을 가정관리 활동을 이끌어가기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규범이 되는 동기요소로서 목표달성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기준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 2. 생활표준의 유래

생활표준은 자원과 환경을 포함하는 상황과 문화나 사회집단과 같은 개인이나 가족의 상호작용영역을 통하여 형성된다. 우선 자원과 환경 즉, 표준이 정해지는 상황은 생활표준 설정에 영향을 준다 (Gross, Crandall, & Knoll, 1980). 예를 들면 가정의 소득과 같은 금전자원, 작업시간, 여가시간과 같은 시간자원, 가족원의 지식, 기술, 건강, 태도와 같은 인적자원의 변화나 여성취업의 증가, 기술 발달, 산업의 발달, IMF 구제금융과 같은 경제환경등의 환경의 변화는 우리의 가정 생활에서의 생활표준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제 3장에서 설명되는 편지향표준, 개인지향표준, 검약지향표준, 물질지향표준은 자원과 환경을 포함하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형성되는 표준의 예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자원이나 환경의 변화가 이러한 생활표준 형성에 영향을 미쳤나 하는 것은 3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생활표준은 문화나 사회집단에서 유래될 수도 있다 (Gross, Crandall, & Knoll, 1980 ; Rice & Tucker, 1986). 즉 표준은 문화의 산물로서 사회·문화 집단 내의 사람들의 반복적인 경험과 생활을 통하여 발생되고, 그 집단을 통하여 전파되는 것으로서 사회적 규범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사회적 규범이란 어떤 행동을 장려하고 어떤 행동을 금지하는지에 관한 일 등의 문화적 신념으로써 사회 집단 내에서 “해야 할 것들”을 다룬다 (Burr, Day, & Bahr, 1993). 이러한 규범의 성격을 갖는 생활표준이 정착되는 요인중의 하나가 타인과의 경쟁에서 위신을 확보하려는 의식이라고 Gross 등은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금전상의 경쟁에 대한 Veblen의 이론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좀 더 나은 사람들의 생활표준을 모방하고 수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경쟁은 경제적인 금전 측면뿐만 아니라 유행 혹은 취향까지 모방하려 한다는 Hoyt의 견해를 적용하여 경쟁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켰다. 즉,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재화나 용역이 비싸기 때문에 혹은 부자들이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방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생활표준이 새로운 것이고 유행이고, 취향이 세련된 사람들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모방하려고 하게 된다는 것이다. 3장에 논의되는 의·식·주 및 여가생활 전반에 나타나는 타인지향표준은 이러한 맥락에서 유래되는 생활표준이라고 볼 수 있다.

## 3. 생활표준의 선택과 역할

표준이 문화나 사회, 상황의 산물이기 때문에 한 사회·문화의 표준은 유사하지만 각 가정이 특정표준을 수용 혹은 거부 혹은 수정하는 선택기준은 다양하다. 이러한 선택기준은 우선 그 생활표준이 선택하는 가족의 가치와 목표와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가족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고 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해주는 생활표준은 그 가족에게 선택되게 되는 것이다. 생활표준을 선택하는 두 번째 기준은 개인 및 가족집단에 생활표준이 미치는 영향력이다. 만약 어떤 생활표준을 선택함으로써 가족의 일상생활이나 자원활용이 효율적으로 된다면 그 생활표준이 채택되는 확률은 높아질 것이다. 생활표준의 선택에서 세번째 고려하는 기준은 표준의 선택에 따른 금전, 시간, 노력 등과 같은 자원의 비용이다. 적은 자원이 요구되고 그 비용이 쉽게 인식되는 표준일수록 가족에게 선택되기가 쉽다. 마지막 생활표준의 선택기준은 표준의 선택에 따른 만족도이다. 이러한 만족의 정도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므로 표준을 선택한 개인 혹은 가족만이 만족감을 판단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첫번째 선택기준인 가치와 특히 관계가 깊다.

개인이나 가족에 의해 선택된 생활표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우선 생활표준은 가족들이 자원을 교환하고 분배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생활표준은 가족자원이 분배되는 방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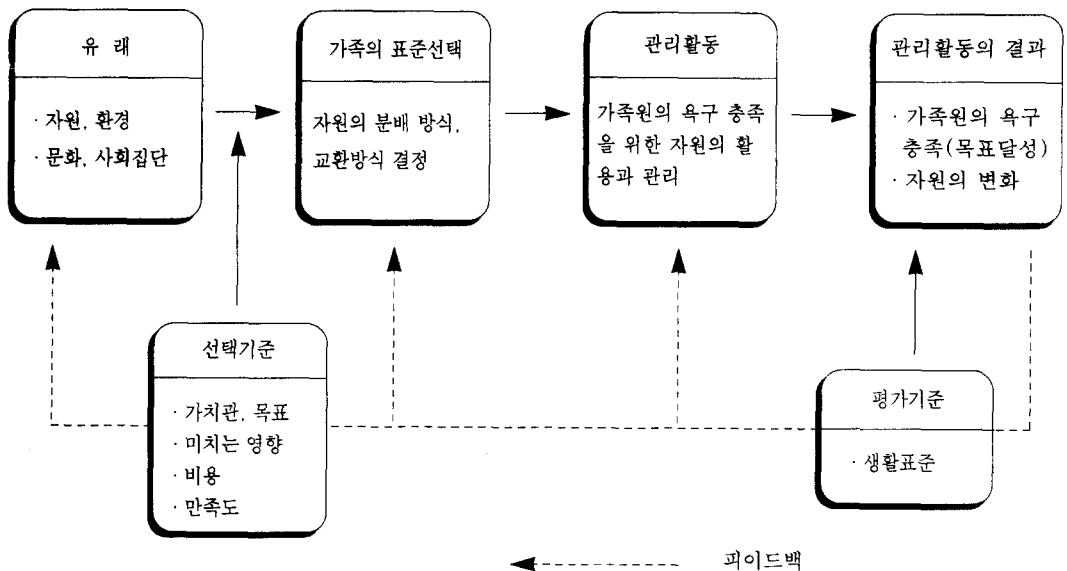
통제하는데 여기에는 금전지출에 관한 표준, 생활공간 활용에 관한 표준, 시간과 애정과 같은 무형자원에 관한 표준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생활표준은 가정관리 활동의 결과로 나타난 가족원의 다양한 욕구 충족(목표달성) 정도나 자원의 변화같은 산출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기능을 한다. 가족원의 욕구가 충족된 정도나 자원의 효율적 사용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투입과정의 생활표준과 비교해 보아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투입으로서의 생활표준이 어떻게 설정되었나에 따라 동일한 결과에 대하여 개인이나 가족이 상이한 만족감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관리에서의 생활표준의 기능을 정리해 보면 <그림 1>과 같다.

다. 먼저 5가지 생활표준이 형성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이러한 생활표준이 갖는 문제점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1. 편의지향 생활표준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은 개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구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변화를 야기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가정의 자원관리 생활표준과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기술적인 진보가 산업생산분야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이 분야의 생산성이 엄청난 규모로 향상되어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대량생산되는



<그림 1> 가정관리에서의 생활표준

Ⅲ. 현대가정의 가정관리활동과 관련된 주요 생활표준의 양상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양한 우리의 환경이나 사회적 특성에 의해 형성된 현대가정의 생활표준을 본 연구에서는 편의지향, 타인지향, 개인지향, 물질지향, 검약지향의 5가지 생활표준으로 정리해 보았

소비재는 가격 면에서 유리하였기 때문에 과거에 가정 내에서 지급되었던 재화와 용역을 싼값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가정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향상과 더불어 이러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은 가사노동을 산업에서 생산된 상품으로 대체하는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또한 기술의 혁신은 가사노동을 경감시키는 각종 가정기기의 생산

을 유도하게 되어 종래 수작업으로 행해지던 가사노동이 가정기기로 대체되게 되었다. 더욱이 기술의 발달은 교통·통신 분야의 발달을 촉진시켰으며 이러한 교통·통신의 급속한 발달은 정보화 사회를 출현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사노동의 사회화, 기계화 그리고 정보화 사회의 출현은 가정생활의 여러 가지 양상을 변화시키고 생활표준을 변화시켰다. 조리과정이 절약되는 각종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 냉동식품과 같은 편의 식품의 이용이 빈번해지고 조리과정이 생략되는 외식이 보편화되었다. 각종 의류나 침구류는 거의 기성상품을 이용하고 있으며 옷수선이나 세탁과 같은 용역부분의 사회화도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깨끗하고 열효율이 좋은 전기, 가스, 석유등의 연료사용은 주거관리의 편의성을 확대시켰고, 탁아소나 유치원, 학교급식시설 등과 같은 사회시설들의 이용은 가족원의 육구충족을 위해 활용하게 되었다. 냉장고, 세탁기, 진공청소기, 취사기기 등과 같은 각종 가정기기의 출현은 종래 손으로 행해졌던 수많은 일상적인 가사작업을 자동화 혹은 반자동화 시킴으로써 좀더 편리하게 신체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술의 발달은 자동차의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하였고 가정의 자가용 보급을 촉진시켰다. 자가용보급은 가족원이 신속하고 빠르게 이동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의 편리함을 증진시켰다. 통신과 전기기술의 발달은 퍼스널 컴퓨터, 팩시밀리, 전화등의 정보 기기를 일반가정에 광범위하게 보급시켰다. 이러한 정보화 기기는 가계 관리(home shopping, home banking, home 예약, home care support)나 주거관리(home automation, 가정경비)의 편의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에 의해 생산된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활용은 우리의 가정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었고 이러한 편리함에 사람들은 점차 익숙해 지면서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생활표준이 높아지게 되었다. 편리를 추구하는 생활표준은 의·식·주생활은 물론이고 여가생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사람들의 자원분배방식과 사용방식을 변경시키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편의 지향 표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다양한 상품과 용역을 구입하기 위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획일화되고 규격화된 상품이 생활을 지배함에 따라 가정의 독자성을 잃게 되고 영리를 우선으로 하는 기업에 대한 가정생활의 의존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각종 가정기기는 가사노동의 부담을 덜어준 측면도 있으나 관련가사활동에 대한 표준 및 요구증가로 절약 효과가 상쇄되었고, 기기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을 부과시켰고, 가정고용인에게 이양되었던 노동을 주부에게 돌려줌으로써 주부의 노동을 증가시키기도 하였다. 가정기기에 의해 증가된 편익은 주부역할에 대한 가치 상실에서 오는 불만족감을 크게 상회하지 못하였고 또한 주부는 가정기기와 더불어 고립된채 가사노동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공동작업을 통해서 얻은 즐거움을 잃게 되는 대가도 치르게 되었다(김성희, 1996). 자동차가 제공하는 생활의 여러 가지 편리함은 교통혼잡, 대기오염, 제한된 천연자원을 고갈시키는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의 증가로 가계에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편의성을 증가시키는 정보기기도 정보기기 시스템에 대한 의존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기기에 대한 접촉의 증대가 인간과의 접촉을 회피하는 현상을 낳게 되고 나아가서는 가족이나 친지간의 교류나 대화의 감소를 심화시켜서 인간을 더욱 소외시키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편의지향 표준은 가정의 자원을 과다하게 사용하게 되어 가정의 비용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희소한 지구자원의 고갈을 가속화시키고 다양한 유형의 폐기물을 양산시키며 자연환경을 황폐화시키는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고 있다. 가정의 획일화, 주부의 고립감, 가정의 기업에의 의존성 증대, 인간성 소외와 같은 현상도 편의위주의 생활표준 달성을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또 다른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 2. 타인지향 생활표준

생활표준은 문화의 산물로서 사회·문화 집단내의 사람들의 반복적인 경험과 생활을 통하여 발생되고 그 집단을 통하여 전달되는 속성이 있다. 현대 산업 사회에서의 매스미디어나 통신의 발달은 타인이 갖고 있는 것을 듣거나, 보거나, 알게되는 기회를 증가시키게 됨으로써 타인에 의해 형성된 생활표준이 어느 시대보다도 빠르게 영향을 주고 있다. 사회발전에 따른 사회적 성격을 규명하고 있는 Riesman등(김태화역, 1984)은 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회적 특성을 타인지향사회라고 부르고 있다. 타인지향사회에서는 사람들은 점차로 자신과 관련된 타인에 대해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며 타인의 생활을 자신의 표준으로 삼음으로써 자기 존재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게 된다. 이러한 타인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타인지향성 생활표준은 오늘날의 우리 가정생활에도 광범위하게 파급되고 있다.

타인지향성 생활표준은 소비생활을 통하여 흔히 나타나고 있다. 소비생활에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사용가치 자체보다는 소비한 제품과 서비스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현재 수준 이상으로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얻기 위해 소비하는 과시소비,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소비를 위해 일정한 수준의 경제력이 따르지 않을 때 "예(禮)"를 명분으로 내용보다 형식에 치우치는 소비를 하는 체면소비, 남에게 보이려고 실제이상으로 자신을 과대포장하는 허세소비, 어떤 집단의 규범에 순응하고 그 집단의 성원들과 비슷해지려는 목적으로 소비를 하는 동조소비(성영신, 1998)등은 모두 타인지향 생활표준을 반영하는 소비생활이라고 볼 수 있다. 타인지향 생활표준에서 유래되는 이러한 소비생활의 특성은 신분의 명확한 구분이 없어진 현대사회에서 물질을 통한 신분과시 욕구가 강하게 작용함으로써 나타나는데 낭비적이고 허례허식적인 체면유지를 위한 요소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타인지향성 소비행태는 계급의 경계선이 흐려진 틈을 타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의 소비수준을 모방하면서 사회계층을 상향 이동하려는 심리를

유발시키고 있다. 저소득층은 상대적 박탈감을 물질적 소비를 통하여 보상받고 물질소비를 통해 신분이나 지위를 상향 이동하고자 하는 열망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타인지향성 생활표준에 의해 형성된 과시적 소비행태는 우리의 가정생활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우선 가사노동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정기기가 가족의 지위를 나타내고자 하는 지위과시용으로 보유되는 경우가 있다. 가정기기에 대한 계층에 따른 과시소비 성향은 특히 혼수품 장만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고기능화, 다기능화, 대용량화된 고가이며 외제인 가정기기를 혼수품으로 장만함으로써 신분이나 지위를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다(김성희, 1996). 혼수품 뿐만 아니라 회갑, 뽕, 장례식 등과 같은 행사에서도 체면을 중시하여 지나치게 외형을 추구하고 여가생활에 있어서도 여가의 진정한 의미와 주체적인 여가활동의 추구보다는 사치성 소비위주의 여가양식이 확산되어 가면서 계층간 위화감을 촉진시키고 있다.

타인지향성 생활표준에 의해 형성된 소비행태는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볼 때 생산적 투자재원의 부족과 부적절한 자원분배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며, 개별가계에서도 자신의 소득을 상회하는 지출을 하게 됨으로써 가계재정적으로도 부적절한 자원관리를 초래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고가의 가계, 고액채무가계를 만들어내게 된다(이기영의 4인, 1996).

## 3. 개인지향 생활표준

경쟁주의, 업적주의, 성취주의라는 이념속에서 구조적으로 개인주의적이고 보수지향적 인간형을 창출해내는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에 영향을 받아 가정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개인지향의 생활표준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소비생활 측면에서 보면 소비수준이 증가하면서 가계단위로 행해지던 소비가 개별 가족원별로 분화되어 이루어지게 되는 개인지향 생활표준의 현상이 보인다(이기영의 4인, 1996). 이는 각 가족원별로 소득이 발생하는데에도 기인하지만 가정속에 파

물었던 주부, 자녀, 노인이 가정밖의 각각의 생활권을 갖고 상품사회와 직접 접촉하게 되면서 각 가족원이 특징적인 소비계층을 형성하는데 기인한다. 이와 같이 개별가족원이 개인위주의 소비생활 표준을 가지고 독립된 소비자로 기능하게 되면 개인별 비용이 확대되어 가계를 압박하고 분화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의 금전관리가 잘못 될 경우에는 그 영향이 가족 전체에 미치게 되므로 가계가 위기에 빠질 기회가 더 커지는 것이 문제가 된다.

여가 생활에도 부분적으로 개인지향의 표준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여가문화 현상을 김문경(1993)은 여가의 사사화(私事化) 및 개별화라고 표현하고 있다. 여가의 사사화란 말 그대로 여가가 한 개인의 사사로운 일로 됨으로써, 타인과의 직·간접적인 정서적 교류가 결여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여가의 개별화는 개개인의 여가가 공적으로 타인의 그것과는 분리·구분되는 어떤 특정한 형태의 경계가 지워진다는 의미가 내포되고 있다. 이러한 여가의 사사화와 개별화 현상은 T.V, 라디오, 오디오, 비디오, 컴퓨터등 개인용 기기보급의 보편화, 경제적으로 1980년대 이후 증진된 사회적 생산력에 따른 소비수준의 향상, 개별화된 정체감이라는 자기 도취감을 북돋우고 강화하는 기업의 여가사업주의, 전통적인 공동체적 여가문화의 쇠퇴와 그 맥이 맞물리면서 나타나고 있는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이념이 팽배하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개인중심의 생활표준에 의해 형성된 여가의 사사화 및 개별화 현상의 증대는 종래 전통사회에서의 여가가 가족 구성원을 통합시키면서 가족의 정체감을 강화했던 기능이 약화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가정생활에서 가족간의 유대를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극단적 이기주의적인 성격을 창출하게 될 우려가 있다.

개인지향의 생활표준은 현대 가정의 생활시간의 배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족원 각자가 개별적인 생활영역이 분화되면서 가족원이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며, 여가활동과 가사노동을 하는 가족공유시간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현대 가족의 변화중 두드러진 특징인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는 부부, 모자, 부모자녀간의 다양한 공유활동과

공유시간을 제약하는 일차적 조건이 된다. 취업에 의한 시간제약성이나 노동시간의 불일치로 인하여 가족이 공유하는 자유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학생들의 시간을 학업에만 쏟게 하는 우리의 교육현실, 아직도 선진 외국에 비하여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남성들의 근로조건도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을 갖기가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이승미, 1997). 특히 일상적인 가사활동의 공유는 가족의 결속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그리고 여성의 취업에 따른 이중역할 부담을 감소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우리의 가정생활에서는 가사노동에 대한 의무가 일차적으로 주부에게 부과되고 있다. 남편의 경우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생활이 이루어져 수입활동을 제외한 모든 일을 주부에게 일임하고,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고수하는 의식이 있어서 가사노동의 부담율이 과거와 비교해 볼 때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자녀의 경우도 학업시간이나 학원 시간등에 과중한 시간을 소비하여 가사노동을 분담할 수 있는 여력이 없게 된다. 이와 같은 가족공유시간 확보를 어렵게 하는 상황적 요인으로 인하여 생활시간 사용 구조에서도 개인중심의 생활표준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위주의 생활시간 사용은 가족이 공유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킴으로써 가족의 결속이나 정서적 친밀감 형성을 저해하여 바람직하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 4. 물질지향 생활표준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람들은 물질의 소유와 소비에 관심을 더욱 집중시키게 되고 나아가서는 물질의 소유와 소비가 삶의 목적이 되어 물질에만 집착하고 물질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물질지향 생활표준을 형성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요인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물질지향 생활표준이 형성되게 된 첫번째 요인은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경제상황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들어 나타난 높은 임금상승률,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일부계층의 과대한 부

의 소유, 수입자유화의 진척으로 인한 선택의 확대, 신용제도 발달로 인한 외상 및 할부거래의 확대 그리고 부정과 부패 속에서 뇌물에 의해서 손쉽게 얻어지는 불로소득의 획득으로 인한 가게의 구매력의 확대는 사람들이 물질을 좀더 손쉽게 소유하고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다.

물질지향 생활표준을 형성시키는 두 번째 요인은 소비확대를 기도하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속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개인적·가족적·사회적 요구의 총체를 시장에 예측시켜 자본의 요구에 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사람들의 물질소유와 소비심리를 극도로 조장하는 판매전략을 대중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선전하고 광고하게 되고, 사람들은 비판이나 자율적 판단을 상실한 채 물질을 소유하고 소비하게 된다(유영주·이정연, 1994).

물질지향 생활표준이 형성되는 세 번째 요인은 심리·정신적인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인간의 욕구단계에 대한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의식주에 관한 생리적인 기본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남에게 인정을 받게 되거나 자아실현을 위한 정신적 욕구의 충족을 원하게 되는데 이때 정신적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공허하고 무의함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상태를 고범서(1992)는 정신적 빈곤상태에 있는 인간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인간은 정신적 공허함과 무의성을 물질의 소유와 소비에서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람은 물질만 많이 소유하면 그것을 소비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행복할 수 있고, 인생에서 성공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 버리고 만다고 한다. 이러한 정신적 공허와 인격적 혹은 사회적 열등감을 물질로 매꾸려는 심리적 속성은 물질지향주의 생활표준을 지향하는 내부기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경제상황, 물질 소유를 부추기는 기업의 상술, 정신적 공허감과 열등감과 같은 심리적 측면은 가정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물질지향 생활표준을 팽배시키고 있다. 물질지향 표준은 타인지향 표준과 맞물리면서 의·식·주, 교육, 여가생

활 전반에 걸쳐 과소비현상을 유도하고 있다. 외제 품선호, 고급 내구재 소비, 호화과대 혼수, 주택의 과도한 치장, 호화로운 향락위주의 해외여행이나 분수에 넘치는 여가활동, 자녀의 과외 등 자기자신의 성공적 삶은 물질적 생활방식으로 표출하는 현상들이 우리의 가정생활을 지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의 치열한 경쟁속에 구가한 승리의 전과물을 소비생활과 여가생활에서 과시함으로써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물질의 노예로 전락되고, 물질에 쫓기는 삶을 구조적으로 선택하게 되고 있다. 이러한 물질지향 생활표준은 개별가계의 경제적 부담이나 부채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건전한 소비문화의 정착을 방해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물질지향 표준은 애정을 기초로 하여 사랑을 주고받아야 바르게 형성되는 가족원간의 인간관계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Foa( Burr, Day, & Bahr, 1993, 재인용)의 자원교환이론에 따르면 보편적인 특성이 있는 물질재화와 같은 경제적 자원과 특정한 사람과 관련되는 특수자원인 사랑과 같은 대인적 자원은 자원교환에 있어서 다른 규칙을 갖는다고 한다. 즉 물질 재화와 같은 경제적 자원은 짧은 시간에, 인간관계를 필요하지 않으며, 대규모집단에서, 한번의 만남으로, 효과적으로 교환될 수 있는 반면 사랑, 애정과 같은 대인적 자원은 교환하는데 긴 시간이 요구되고, 인간적인 관계가 필요하고, 또한 소규모 집단에서 효과적으로 교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이한 교환규칙을 갖는 두 자원이 같은 차원으로 교환이 되면 자원교환의 효율성이 저해되어 자원의 낭비가 초래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족에서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등 사랑과 애정이 요구되는 인간관계가 물질이나 재화의 교환만으로는 바르게 형성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물질지향 생활표준은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를 물질로만 해결하려는 의식을 초래하여 관계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왜곡시킬 수 있다.



## 5. 검약지향 생활표준

과거 자원이 희소하여 재화를 생산하는데 많은 육체적 노력이 필요하던 전통사회에서 고수되었던 생활표준의 하나는 근검과 절약을 강조하는 검약의 생활표준이었다. 이러한 근검절약의 생활표준은 조선시대의 여성들을 교육하는 여러 문헌에 나타나고 있다(이길표·주영애·이은표, 1992). 또한 초기자본주의 시기에도 근면, 검소, 절제, 저축등의 금융주의 가치관이 중요한 생활표준이었다. 이러한 생활표준하에서는 재화의 소비욕구는 현재의 욕구를 억제하고 땀흘려 일한 대가에 의해서만 충족시킨다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본가들이 검약과 근면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것이 사회적 미덕이었고 이러한 미덕이 자본주의 발전의 도덕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검약의 생활표준은 가계의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자원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현대사회에서의 가정생활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계속적인 실질 임금을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서는 물가의 상승이 가계에 심리적인 불안을 주고 있다. 이러한 불안은 가계 긴축을 초래하게 되고 이에 대한 해결방법의 하나로 가계는 소득이나 재화를 아껴 쓰게 된다. 특히 최근 IMF경제 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원자재값 상승, 고금리, 세금인상, 업자들의 가격 담합등으로 물가상승율이 기록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은 더욱 더 가계로 하여금 검약의 생활표준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화의 진전으로 인한 도시로의 인구이동은 심각한 주택난을 야기시키게 되었고, 절대적인 주택수 부족으로 인해 집값이 폭등하여 도시가계들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의 많은 부분을 할당해야 되며 채무의 부담까지도 갖게 되는 상황에서 가처분 소득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 또한 신분상승을 위한 수단으로 인신권 교육을 위한 과도한 투자나 현대 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 질병, 사망, 이혼, 이직, 실업 등에 대처하기 위한 지출이나 자금의 비축도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조영희, 1995). 이와 같

이 감소된 가처분 소득으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계는 의식적으로 검약의 생활표준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다.

더욱이 최근 우리 나라는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것을 계기로 급격히 성장해 오던 경제가 둔화되고,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상승이 가속화되고, 실업이 대량으로 발생되었으며, 가계는 임금동결과 임금감소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외적 경제환경의 변화는 검약지향의 생활표준이 가정생활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다. 배우자 정보회사 [듀오]가 1998년 2월 수도권 지역 26-35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IMF가 준 가장 큰 선물은 남녀 모두 [절약의 습관화]라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경향신문, 98년 3월 9일자) IMF와 같은 외적 경제환경의 변화가 우리의 생활표준을 검약지향으로 바꾸게 되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IV. 새로운 생활표준 정립을 위한 제언

이제까지 현대 가정의 가정관리 활동에서 나타나고 있는 생활표준을 5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5가지의 생활표준은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상황적 특성 때문에 형성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를 갖고 있다고 보지만 이들 생활표준은 왜곡된 자원분배나 교환방식을 초래하여 자칫 개인이나 가족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차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정된 새로운 생활표준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 1. 편이지향 생활표준에서 편의질충 생활표준으로

생활의 불편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이고 그리고 일단 편리한 생활에 익숙해지면 계속해서 이러한 편리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도 인간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편의를 추구하는 생활표준의 선택에 따르는 비용과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본다면 어느 정도의 불편함

을 감수하는 즉 절충적인 편의를 추구하는 생활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사회화된 가사노동의 일부를 가정내 생산으로 전환시킨다든지, 가정기계에 의존하던 일부생활요소를 수작업으로 수행해본다든지, 자가용이나 각종 정보화 기기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등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편의추구를 일부 유보하는 생활표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편의절충 생활표준은 불편함을 대가로 새로운 이득을 얻게 되고 이렇게 새롭게 얻어진 이득은 불편함에 따르는 비용을 상쇄시키거나 이를 뛰어 넘어 전체적인 생활의 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가사노동을 시장상품과 용역으로 대체하는 대신 가정내 생산을 통해서 얻게 되면 편리함이 감소하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유용한 재화를 얻을 수 있으며, 시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없는 특별한 질의 상품의 공급을 통해 가족원에게 시장에서 구입한 상품보다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다. 또한 가족원들은 필요한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창조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으며, 특히 가사노동이 가족원 전원의 참여로 이루어질 때는 가족원을 통합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각 가계가 필요로 하는 재화의 시장의 존성을 감소시키고, 따라서 가정의 요구하는 재화에 대해 생산자나 공급자의 결정에 덜 의존해도 되는등 (Fitzsimmons & Williams, 1974) 새로운 이득을 향유하게 된다. 경감된 가계의 경제적 부담감, 오염없는 환경, 원활한 교통소통, 희소한 지구자원의 보호, 감소된 폐기물, 절약된 에너지등도 우리가 불편함이라는 대가를 어느 정도 치르는 편의절충 생활표준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이득이라고 볼 수 있다.

## 2. 타인지향 생활표준에서 주체적인 생활표준으로

타인의 생활을 자신의 표준으로 삼고 타인으로부터 자기존재의 인정을 받으려는 허례허식적이고 과시적인 생활표준에서 자신의 확고한 가치에 기반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가용한 자원을 평가해서 주체적으로 생활표준을 설

정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주체적인 생활표준이란, 무엇이 바람직하고 무엇을 해야하는 가를 나타내주는 가치를 명시화(언어화된 상태)하여 뚜렷하게 인식하고 이러한 가치 실현을 위한 장·단기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자신의 가족이 소유한 금전, 재화와 같은 물질 자원뿐만 아니라 노력, 지식, 기술, 시간과 같은 인적자원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설정한 달성 가능한 표준을 말한다. 이러한 주체적인 생활표준은 실행과정에도 무리가 없고 수행의 결과에서도 그 표준에 도달됨으로써 만족도가 커질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가족자원 사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타인지향 생활표준은 자신과 관련된 타인의 생활이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각 가정의 생활표준이 주체성을 가지고 설정된다면 이러한 생활표준이 타인가정으로 전이되고 이러한 전이효과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때 사회 전체의 타인지향적 성격이 개선되리라 본다. 특히 타인지향성 생활표준이 자신보다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좀 더 나은 계층의 생활을 모방하는데서 유래된다고 볼 때 사회적으로 상위계층에 속한 가정의 생활표준의 주체성 확립과 건전화는 무엇보다도 요구된다고 본다.

## 3. 개인지향 생활표준에서 공동체지향 생활표준으로

소비생활, 여가생활, 생활시간 배분등 가정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형성된 개인지향 생활표준이 자원 낭비 및 가족생활의 유대감 약화를 초래하는 것을 감안할 때 가족공동체를 고려하는 공동체지향 생활표준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공동체지향의 생활표준이란 가족 구성원 각자를 주체성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가족 전체의 욕구를 고려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결속시킬 수 있도록 물질·인적 자원을 배분하는 생활표준을 말한다.

가족원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개별 가족원의 욕구와 가족 전체의 욕구를 파악하고 두 욕구가 상충할 때 가족전체의 욕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재정자원 및 물질 자원을 배분하고 가족 단위의 적극적 여가활동을 통하여 여가생활을 공유하고,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나 대화시간을 통하여 가족공

유시간을 증가시키고 주부에게 집중된 가사노동을 가족원들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분담하는 것은 가족공동체 지향의 생활표준을 달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가족공동체 지향의 생활표준은 낭비가 적은 자원활용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의 공동성과 공동체적 관계가 형성되어 가족의 결속이나 친밀감을 높여주는 기회를 증진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 생활표준은 가족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욕구도 고려하는 사회적 차원까지도 확대되어야 된다고 본다. 사회적 욕구를 고려하는 공동체 생활표준은 사회적 책임감의 수행, 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통하여 사회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고 질 좋은 환경을 보장하게 된다.

#### 4. 물질지향 생활표준에서 존재양식지향 생활표준으로

인간의 생활은 물질이 없이는 신체적 생존의 욕구를 유지할 수 없으나 물질의 소유와 소비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물질지향 생활표준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재가치를 실현하는데 장애요소가 됨을 과거로부터 많은 사상가들이 주장해오고 있다. 예를 들면 맑스는 물질적 필요의 구속에서 자유로워야 진정한 자유의 영역이 펼쳐지고 참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공자는 인간이 물욕에 의해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물욕을 부리는 자유자로 살 때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맛볼 수 있다고 하였다(김문겸, 1993 :309, 재인용). 고범서(1992)도 후기 산업사회속에서 바람직한 삶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행복추구의 열망에 의한 물질적 향락주의를 지양하고 정신적 가치에 중요성을 두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물질 소유에 관심을 두는 물질주의 생활표준에 의한 생활표준보다는 인간의 초생존적 욕구인 이성, 심미감, 사랑, 자유, 창조, 종교적 욕구 등을 충족시키기 위한 존재양식지향의 생활표준에 의한 생활이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존재양식 지향의 생

활표준이란 실존으로서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 의미 및 이념과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생활표준으로써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자원관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 존재양식지향의 생활표준은 일정한 수준의 물질체에 만족할 수 있는 간단한 생활표준을 추구하고 물질의 획득 못지 않게 인적자본의 계발을 중시하며, 인간관계의 형성에 있어서도 물질의 교환보다는 애정교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생활표준을 말한다.

#### 5. 검약지향 생활표준에서 신검약지향 생활표준으로

신검약지향 생활표준의 제안은 검약지향생활표준을 지양하고자 하는 의도에서라기 보다는 이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출발하였다. 왜냐하면 검약지향생활표준은 과거에는 재화의 결핍과 낮은 생산성에서 강요되는 생활표준이었으나 오늘날은 일부자원의 고갈, 경기의 불황, 생태계와 환경의 질 유지를 위해서 의식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생활표준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약의 생활표준은 개인이나 가족 측면에서도 검약을 통하여 그만큼 소비를 연기시킴으로써 경제상 이득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윤리적인 측면에서도 계층간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임정빈 외 4인, 1993).

이러한 검약지향 생활표준의 기초위에 인간중심 가치관과 전체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는 신검약 지향 생활표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신검약지향 생활표준이란 가족자원을 절약하고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자원관리에 포함되는 인간성을 무시하거나 능력개발을 저해하지 않는 인간중심 가치관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절약적 태도나 자원의 보존, 자원관리의 효율성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생활표준의 지나친 강조가 관련된 사람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어 인간의 발달을 저해하고 만족감을 감소시킨다면 결과적으로 개인이나 가족의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에너지 절약을 위해 조명을 지나치게 낮추어 시력을 해치게 되면 시력의 저하로 인하여 치루어야 되는 대가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검약 지향 생활표준이란 개인이나 가족이 소비나 자원활용방법이 전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절약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체계의 순환적 특성을 생각해보면 소비는 생산과 더불어 경제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내수는 수출과 더불어 국민경제 성장의 기본이 된다. 그러므로 개별가계의 지나친 소비절약은 투자수요의 위축으로 이어져 기업은 생산과 투자를 줄이게 되고 이에 따라 국내의 내수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IMF 구제금융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중앙일보, 98년 2월 6일, 9일자). 따라서 가족은 가족이 소유하거나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을 바르게 평가하여 절약의 기초위에 가족 능력에 맞는 건전한 소비기준을 정하는 신검약지향 생활표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가정관리에서의 생활표준의 의의와 현대가정의 가정관리 활동에서 나타난 주요 생활표준의 양상을 살펴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생활표준을 제시하여 보았다. 이러한 고찰에 기초하여 생활표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생활표준은 가정관리활동을 이끌어가기 위한 동기요소이며 자원과 환경을 포함하는 상황, 문화와 사회집단에서 유래된다.

둘째, 생활표준은 개인이나 가족의 자원을 교환하고 분배하는 방식을 통제하며 가정관리 활동의 산출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셋째, 현재 가정의 가정관리 활동과 관련하여 형성된 편의지향, 타인지향, 개인지향, 물질지향, 검약지향의 생활표준은 편의절충, 주체적, 공동체 지향, 존재양식지향, 신검약지향 생활표준으로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생활표준이 가정관리활동에 갖는 역할을 생각할 때 가정에서 형성된 생활표준은 가정관리활동의 질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 하는 가족의 생태체계적 특성은 개별가정의 가정관리활동의 결과가 상위체계인 사회구조나 전체환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잘못된 개별가정의 생활표준은 개별가정의 복지저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전체나 지구 전체의 생활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나 가족이 생활표준을 올바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생활표준이 형성되고 소멸되는 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활표준이 각종 자원교환이나 분배하는 방식에 관여하는 내·외부기제, 생활표준과 생활만족도, 생활표준과 생활의 질 관계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는 바람직한 생활표준 형성을 유도하는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본다.

둘째, 가정관리활동에서의 생활표준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생활표준이 인식되지 않으면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활표준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개인이나 가족의 현재의 생활표준을 진단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척도를 통하여 개인이나 가족은 자신의 생활표준을 인식하게 되고 이를 기초로 수정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셋째, 가족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가정학의 목표가 있다고 볼 때 바람직한 생활표준의 정립은 전체 가정학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정학의 학문공동체는 집합적인 노력을 통하여 가정생활의 다양한 측면의 생활표준 모형을 제시하고 각 생활표준에 따르는 구체적인 생활지침이나 실천적 과제를 개발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생활표준 모형은 신문, 잡지,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나 소책자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홍보를 하고 상담이나 교육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개인이나 집단의 가치관에 기반을 둔 생활표준의 특성상 이를 형성하거나 수정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생활표준 정립을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가정에서의 비형식적인 생활 교육 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한 형식적인 교육이 모두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전체의 자원 분배가 보다 평등하고 공정하다면 사회집단구성원간의 갈등이나 계층간의 적대감이 감소될 것이며, 정당한 노력의 대가에 의하여만 부나 자원을 획득할 수 있다는 의식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식의 확산은 가정의 건전한 생활표준 형성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책결정을 통하여 부의 편재나 불로소득의 확산등을 지양하며 부와 권력에 의해 비윤리적인 분배를 조장하는 사회의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 1) 경향신문. 1998년 3월 9일.
- 2) 고범서(1992). 가치관 연구. 서울:나남.
- 3) 김문경(1993). 여가의 사회학. 서울: 한울 아카데미.
- 4) 김성희(1996). 가정기기 도입에 따른 가사노동의 변화 : 현대과학기술에 의해 생산된 가정기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5) 문숙재·곽인숙·김순미·홍성희·윤숙현(1996). 새로 보는 가정경영. 서울: 학지사.
- 6) 백경미·이기춘(1993). 물질주의 성향과 준거집단 영향이 과소비 성향에 미치는 효과 : 목포시와 광주시 주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12.
- 7) 이기영·이은영·옥선화·백희영·홍형욱(1996). 광복후 가정생활의 변천.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 8) 이길표·주영애·이은표(1992). 전통생활문화를 토대로 한 가사관과 오늘날의 가사분담 및 가사작업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 : 미래 가정경영의 주체자가 될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생활문화연구, 6. 성신여대 생활문화연구소.
- 9) 이승미(1997). 가족공유시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10) 임정빈·지영숙·문숙재·이기영·이연숙(1993). 가정관리학. 서울:학지사.
- 11) 중앙일보. 1998년, 2월 6일, 9일.
- 12) Burr, W.R., Day, R.D., & Bahr, K.S.(1993). Family Sciences. Belmont, CA:Wadworth, Inc.
- 13) Gross, I., Crandall, E.W., & Knoll, M.M.(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4th.ed. Englewood Cliffs : Prentice Hall Inc.
- 14) Rice, A.S., & Tucker, S.M.(1986). Family life management, 6thed. New York:John Wiley and Sons Co.
- 15) Riesman, D., Glazer, N., & Denney, R.(1953). The lonely crowd. 김태화(역). 1984. 고독한 군중. 서울 : 정암.